

後進國經濟政策의 몇 가지 根本的問題에 關하여

姜 濱 口

<目 次>

| |
|-----------------------|
| I. 緒 論 |
| II. 經濟政策的觀點 |
| III. 農業問題에 關하여 |
| IV. 商業問題에 關하여 |
| V. 工業問題에 關하여 |
| VI. 經濟成長過程의 資本調達에 關하여 |
| 1. 第 1 側面 |
| 2. 第 2 側面 |
| VII. 結 論 |

I. 緒 論

모든 科學은 그것이 社會科學이건 아니건 그 時代의 社會環境과 歷史的背景의 影響下에 서만 開發되며 또한 그 社會가 提供하는 便宜와 그 社會에 有用하다는 意識에 依하여 左右된다고 할 수 있다. 經濟學이란 學問도 初期엔 原料의 供給과 製造品의 販路를 解決해주는 消費市場인 他地域(植民地等)에 依存하는 少數國家들을 爲한 急速한 工業化라는 利益意識에 支配되어 그 模型이 形成되고 生成發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初期經濟學에서 우리는 國際的分業, 比較生産費 그리고 生産要素의 配分(allocation of the factors of production)을 爲한 競爭의 效能性등의 原則下에 自由交換과 自由放任(laissez-faire)의 理念들의 展開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近代에서의 少數 大企業들에 依한 經濟勢力의 集中이란 새로운 現象은 獨占理論 乃至는 不完全競爭理論의 生成을 보게 했고 1930年代의 世界恐慌은 經濟學的 課題의 重點을 經濟 乃至 景氣循環에 옮기게 하였고 그 結果 Macro 經濟의 概念과 Keynes 理論등을 出現케 한 것이다.

經濟學的 發展과 步調를 같이한 所謂 先進國들의 經濟史的背景이 오늘날 그들의 技術革命과 繼續的인 經濟的成長을 促進시켜 왔다면, 特히 今世紀에 들어서 傳播된 平等思想에 依하여 自覺을 얻은 後進國들의 經濟成長의 問題는 必然的으로 새로운 角度에 立脚한 經濟學을 要求하게 되는 것이다. 과연 後進國民들의 苦悶은 自己들 나라에게 가장 빠른

經濟成長率를 保障할 수 있는 政治 乃至 政策의 科學的研究에 있는 것이다. 이 苦悶은 其實 Malthus가 人口와 食糧生産의 不均等한 增加率에서 招來되는 饑饉의 不可避性을 說教했을 當時의 世界를 壓倒했던 苦悶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不安은 明白한 確證에 그 根據를 두는 것이다. 즉 歐美諸國에서 1800年以來 生産量이 6倍로 增加했다면⁽¹⁾, UN의 調査에 依하면 世界人口의 3分の 2를 차지하는 後進國人口들은 18世紀以來 그들의 生活水準에 거의 向上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²⁾ 이렇게 世界到處에서 보는 不均衡한 經濟成長率은 多樣한 人間社會사이에 莫大한 經濟的不平等을 助成해온 것이다.

本論稿에서 筆者는 우리나라와 같이 比較的으로 知的後進性을 띠는 그러나 經濟的으로는 舊植民地經濟의 性格을 지니면서, 西歐式資本主義의 模型안에서, 뚜렷한 出口을 發見乃至는 決定치 못하고 또한 國民所得이 낮은, 宿命的으로 後進性을 띤 新生國經濟에 關하여 몇가지 생각을 추려보기로 한다.

여기서 知的水準을 問題視하는 것은 以下の 意圖下에서이다. 于先 이 問題는 經濟外的인, 오히려 社會學領域에 包含될 性質의 概念이겠고, 이런 意味에서 H. Myint⁽³⁾를 비롯한 先進國經濟에 關心을 갖는 經濟學者들의 大部分이 이 문제에 無關心하다고 非難할수는 없겠다. 그러나 G. Myrdal⁽⁴⁾에 依하면 經濟理論들은 그 誕生期부터, 人道主義的 合理主義의 知的 脚光을 받은 傳統에서 進展하였고, 地球上의 人口의 여러 相異한 集團, 民族들 중에서 先天的 固有的인 質的差異에 그 基礎를 둔것은 아니라고 한다. 여하튼 被教育者의 數가 많을수록, 知的成熟⁽⁵⁾의 平均의水準이 向上되며, 이것은 社會的 經濟的進歩에 對한 受容性(receptivity)이란 뜻에서 後進性을 脫皮하려는 努力에 不可避한 事項이며, 여러 種類의 後進國들을 分類함에 있어서 積極的으로 참작해야할 尺度의 하나일 것이다.

知的成熟의 程度를 間接的으로나마 文盲退治의 成果에서 엿볼수있듯이, 한 나라의 經濟的成長의 程度를 測定하기 위하여 通說은 1人當國民所得의 成長率이 그 單純性과 接近의 容易性으로 보아서 가장 좋은 道具라고 생각한다. 이 方法은 그러나, 重大한 缺點을 지니고 있다. 즉 어떤 經濟發展의 要素는 國家會計에 反映되지 않는데, 가령 한 重要한 投資

(1) S. Clough, "Strategic Factors in Economic Growth", *Political Science Quarterly*, March 1955, p. 19.
(2) Chabert (A.), "Structure économique et théorie monétaire", Paris, 1956, p. 70에서 引用한것.
(3) "An interpretation of economic backwardness", *Oxford Economic Papers*, June 1954, p. 132:".....in speaking of 'a backward people', in contrast to 'an advanced people', I am referring only to economic life and do not in the least imply general cultural 'backwardness'".
(4) *Economic Theory and Underdeveloped Regions* London, 1957, p. 119.
(5) E.E. Papanicolaou, "Théorie et Pratique du Développement économique", Paris, 1958, p. 12에 보면 UNESCO의 한 報告에 依하면 地球人口의 半數가 文盲者라 한다.

의 計劃이 長期經濟開發計劃의 一環을 形成할 경우 이는 當分間 國民所得增加要素에 包含되지 않고 오히려 그 減少를 招來할 수 有하다. 反面, 國民所得의 增加가 어떤 경우엔 單純히 外因的인 要素에 依해서 나타날 수 有하다. 消費性을 띤 外國의 無償援助든가, 外國人에 依한 國家資源의 開發 (例를 들면 中東亞細亞의 石油등)에서 收入되는 使用料등은 國家經濟가 스스로 發展 過程을 그만큼 밝지 않고서도 國民所得을 相當히 增加시키는 것이다. 또한 지나치게 不平等한 國民所得의 分配는⁽⁶⁾ 1人當國民所得의 平均値를 팽창시킬 수는 있어도 그나라의 經濟發展을 妨害하는 큰 要素가 될 것이다. 如何든 國民所得水準은 그나라 國民의 生活水準⁽⁷⁾을 大體의으로 相對的으로만 表示한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고, 한나라의 後進性을 論할때 적절한 經濟的比較指數로서 有用하다 할 것이다.

後進國經濟에 關한 大部分의 研究는 經濟的으로 이미 發展된 國家에서 先進의 先例에서 얻어진 蓄積된 知識을 通하여 行해졌으므로, 主로 人口問題에 重點을 둔 것을 除外하고는 그나라들의 觀點은 後進國들 自身의 利益보다는 아직도 自由交換을 通한 比較生産費의 理論과 그 報酬의 平等의 理念위에서만 서 있는 듯 하고 이 事實은 繁榮하는 地域과 貧困으로 허덕이는 地域으로 深刻히 區別된 世界의 現時點의 位置를 더욱 公高히 하는데만 公衡한 結果가 된 것으로 보인다.⁽⁸⁾

後進國問題에의 接近을 爲한 試圖은 主로 歷史的인 研究와 比較 (어떻게 産業革命이 發端되었으며 後進國들에게도 類似한 課程을 밟게 할 수 있는 方法의 追求), 計量經濟學의 分析과 研究 (팽창 經濟의 數學的 model의 作成) 及 經濟政策의 研究(後進國들의 發展을 沮害하는 原因들을 究明하고 發展의 促進策을 찾는 것) 등으로 그 方法을 區別할 수 있겠다. 本 論稿는 이 세번째의 區分의 범위內에 들어 간다.

II. 經濟政策의 觀點

Louis Bean 이란 美國經濟學者는 그의 著書 *International Industrialization and per Capital*⁽⁹⁾에서 統計的資料에 依據하면서 商工業에 從事하는 勞動人口가 많아 질수록, 따라서 農業人口가 減少될수록 1人當國民所得額이 上昇한다고 論證한 다음 이러한 與件위에서, 中國

(6) "Quel Avenir Attend l' Homme", p. 74: "오늘날 Venezuela의 1人當國民所得은 佛蘭西의 그것과 同額인 700 U.S. \$인 것이다. 그러나 Venezuela의 文化生活과 社會의 福祉도 佛蘭西의 그것과 同一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問題는 國民所得의 1人當平均이 아니라 그 分配에 있는 것이고 이 700\$이란 額數는 7大家族의 7億과 나머지 全人口의 貧困을 合하여 算出한 平均値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바로 그러한 經濟發展의 不均衡을 發見할 수 있다……"

(7) 엄격한 意味에서 生活水準은 1人當 每年消費하는 物質量에 依해 決定되며, 國民所得中의 投資部分은 生活水準向上을 約束함에 지나지 않는다.

(8) Papanicolaou, *ibid.*, p. 16. 參照.

(9) Papanicolaou, *ibid.*, p. 35에 引用된 것에 依함.

과 印度에서 假令 15%의 食糧生産部門勞動力이 商·工部門으로 옮겨진다면 總國民所得額은 2倍로, 10%의 勞動人口가 同方向으로 追加移動된다면 3倍로 飛躍할 수 있다고 推定하였다. Viner⁽¹⁰⁾는 이러한 論法에 그러면 醫業 齒科業 理髮業等の 職業의 所得이 1人當國民所得額보다는 높으므로 同種職業人이 增加한다면 全體國民所得도 그만큼 增加할 것이나 라고 反問한 것이다. 果然 特惠的地位에 있다고 하는 商·工兩部門의 勞動人口가 增加한 하였다 하여 國民總生産이 그만큼 擴張되는 것은 아닐 것이며, 反對로 農業部門萎縮(所謂 僞裝失業人口를 除外한後)은 오히려 그 減少를 招來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 勞動力의 商·工分野로의 集中傾向은 必然的으로 競爭을 惹起할 것이며 當初의 高額所得率은 農業人口의 所得率과 同一해 질 때까지 低下할 것이다.

同一한 論法으로 어떤 農業의 後進國이 그의 不利한 條件下에 있는 經濟를 國家間의 經濟的不平等을 除去하므로써 改善하려고 工業化를 試圖할 境遇 이 方法이 短期間內에 國民全體의 富를 增加시킨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또 이 國家는 必然的으로 自己의 工業化努力이 다른 商·工業國家에게 미칠 影響을 考慮치않고 이 計劃이 長期的으로 國民所得을 增加시킨다는 保障만 있다면 모든 積極的인 意圖의 對象이 될 것이다. 더구나 “支配的經濟”⁽¹¹⁾의 國家들이 現今까지 마치 自己를 固有의 理念처럼 誇示해온 “民主主義的理想”의 諸原則下에 世界經濟秩序를 構築하기 爲하여 얼만큼 關心을 가져왔는지는 極히 疑心스러운 것이다. 이는 마치 齒科醫나 理髮師가 顧客들 便宜보다도 金錢의 利益을 앞 세우는 것과 同一한 理致다.

또한 다른 問題로서, 흔히 保護貿易政策을 論難하는 사람은 이 語彙를 帝國主義的이기까지한 經濟的民族主義의 商業政策으로서 極히 排他的인 것으로 보는 듯하다. 그러나 現世界經濟를 考察해볼때, 오히려 貧困한 國家에서 如斯한 政策을 慣用하고 先進國들은 後進國들에게 自由交換을 장려하는 것이 보통인데,⁽¹²⁾ 이를 偶然한 事實로 볼수는 없는 것이다. 經濟的民族主義가 國家間에선 不利한 偏見으로 보여지겠으나 國家經濟에 有利하기만하면 어떠한 經濟政策도 不辭한다는 原則을 取한다면 經濟的民族主義의 理由는 充分히 있는 것이다. 이렇게 後進國經濟政策은 一國家의 完全無缺한 政治的 經濟的獨立을 不許하고 國家間의 相互依存度가 漸增하는 現下世界事情이 許하는 限度內에서 強力한 獨立性을 堅持함이 좋을 것이다.

歷史를 마치 發展의 案內者로서 取扱함에는 항상 危險이 介在되게 되는 것이다. 즉 現先進

(10)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Development, Oxford, 1953, p. 46.

(11) F. Perroux의 “Economie dominante”를 뜻하며 (그의 “20世紀經濟”參照)先進經濟가 後進經濟에게 미치는 支配的概念을 意味한다.

(12) GATT와 EEC의 境遇에서 볼 수 있다.

國들의 經濟成長過程始動當時의 與件과 今日的 後進國들이 當面하고 있는 課題들 사이에는 別로 共通點을 發見할 수 없다. 其中에서는 가장 根本的인 相異點은 現先進國들은 成長過程의 發端을 본 19 世紀 期間동안 全世界의 先驅者로서 自任할 수 있었으나 오늘의 後進國들은 不均衡狀態를 逆調케 하고 自覺된 經濟成長의 遲延을 메꾸려는데 問題가 集中되어 있다는 事實이다.⁽¹³⁾ 즉 市場에의 第1着者가 販路擴張可能性을 最大로 享有하는 것이며, 換言하면 19 世紀以來 第1次大戰까지 그들 先進國의 經濟成長은 植民地域의 自然資源의 獨占 強占에 依하여, 또 植民地나 當時 沈滯中の 歐洲諸國들에서의 市場開拓에 依하여 大部分의 動力을 획득했던 事實을 불매, 가령 이 世界市場이 名實相符하게 民主主義的으로 編成되어 있었다면 오늘날 後進國은 이에 參加하기 爲하여 이미 飽和狀態에 達한 現世界市場에서 所要되는 努力보다도 훨씬 작은 努力으로 더 큰 成果를 차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當時 發展途上의 國家들은 國外市場以外에도 生産構造에 絕對로 有利하고 充分한 購買力을 保有하는 國內市場의 뒷받침도 있었던 것이다. 그 反面 오늘날 後進國의 國內市場은 아직까지도 그리고 오히려 外國의 商業的 利益追求에 依해 威脅받기 쉽고 不足한 購買力은 懷妊期에 있는 國內工業發育에 餘裕를 주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與件下에서 17 世紀의 瑞典이 建築用材木의 輸出에 依하여 그의 現代工業의 基礎가 構築되고 곧 이어 離陸 (take-off) 段階에 突入했다는 W.W. Rostow⁽¹⁴⁾의 理論이 果然 어떻게 “고부”란의 單一 生産과 輸出의 結果, 過度한 外勢依存만을 招來하고 國家經濟의 調和의 發展을 沮害한 Malaysia의 境遇에 適用될 것인가는 相當한 關心事인 것이다.⁽¹⁵⁾

人口問題를 考察해도, 發展途上에 있었던 歐洲諸國은 限定된 人口數와 낮은 人口增加率의 惠澤을 누린 反面 오늘날 落後한 國家들은 莫大한 既存人口數에 다 강한 出生率과 低下된 死亡率에 依해 심각한 難關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其中 死亡率低下現象은 歐洲各國이 發展途上에서 겪지 않았던 복잡한 問題들을 提起한다. 歐洲各國의 當時의 死亡率曲線은 商業化된 醫業이 國民所得增加와 併行하여 發展했던 關係로 經濟發展과 相反된 傾向을

(13) 其他의 相異點으로서, 18世紀末葉의 경우, Habakkuk,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the Basic Conditions of Economic Progress, 1943, p. 153 에 依하면, 地理的으로 擴大된 市場, 交通 및 商業의 容易性, 比較的高率의 國民所得의 工業生産品消費장려, 國民들사이에 Thesaurisation (蓄財)이나 生産意慾喪失등의 傾向이 없다는 事實, 半數以上의 國民數가 平均所得의 水準以上에 있었다는 事實등을 들 수 있다.

(14)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第5章參照.

(15) 後進國의 依存性은 오히려 商品生産과 輸出이 극히 限定된 數의 商品에 方向지어진 事實에 依해 더 惡化되는 것이다. Que-sais-je? 文庫의 “後進國” p. 7 에 依하면, 總輸出額에서 Venezuela와 Iraq 에서는 92%가 石油, Colombia 에선 80%가 coffee, Brazil 에서는 70%가 coffee, Egypt 에서는 70%가 綿絲라고 한다. 이 지나친 專門化는 國內全活動을 世界市場價格의 波動에 따라 左右하게 하므로써 永久한 經濟的 不安定을 免치 못하게 한다.

모였고, 生存期間의 平均年數가 文化指數役割을 했음을 볼때, 現後進國의 경우는 너무나 相異한 것이다. 非商業的 國際的 援護運動의 博愛精神에서 이루어진 後進國民의 平均生存年數의 延長은 其實은 그國民들의 健康水準自體를 改善시킨것은 아니며(이런點에서 上記의 運動은 展示의效果를 目標로한 印象까지도 주는 것이다) 그結果 非生産의人口層의 增加及 勞動人口의 負擔의 相對的增加를 招來한 것이다. 健康水準은 不問에 부치고 生存年數增加가 相對的으로 勞動年數까지도 增加시킨다고 假定하더라도 結局 沈滯된 社會에 慣習된 있는 年老層의 增加는 必然的으로 殘餘人口階層의 新社會規律에 同化하는 努力에 많은 支障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러한 不利한 條件들은 後進口經濟成長過程의 始動에 큰 癥이라 할 수 있고 특히 그 첫段階에서 不利한 局面을 強要하는 것이다.

J. Duesenberry⁽¹⁶⁾에 依하면 消費者로하여금 必要以上으로 商品을 사게하는 衝動의 頻度와 強度는 自己支出과 他消費者支出과의 比例關係에서 發見할 수 있다 한다. 後進國의 境遇 “誇示效果”란것은 後進國消費者들이 先進國의 高生産水準에 對한 羨望에서 오는 消費增加를 意味할 것이며 이 現狀은 後進國의 長期的投資能力培養과 意慾이 莫大한 非生産的消費支出앞에서 萎縮되는 效果를 가져온다. 이 點에서 先進國들은 一部の 責任을 負지 못 할 것이며, 特히 販賣增加를 爲한 外國商業宣傳, 貧困國에서의 새로운 消費慾과 必要品을 創造한 點에서 더욱 그렇다. 他面 各種美國援助는 殺到하는 高度로 優秀한 製品앞에 貧弱한 國內生産品을 陳列케 했고, 이는 國內生産品에 對한 相對的劣等意識을 助長한 것이다. 더욱이 美國商品들의 殺到는 援助等の 美名下에 關稅등의 各種稅에서 免稅되었음을 記憶해야 할 것이다.

先進國들의 蓄積된 産業技術輸入으로 先驅者들이 겪어야 했던 失敗와 所要期間을 克服할 수 있다는 後進國을 爲한 有利한 條件도 몇가지 考察을 必要로한다. 우선 産業革命이란 것은 單純히 몇가지 發明을 産業에 適用한 結果는 아닐 것이며 當時社會의 例外的이고 特殊한 數많은 要因들에 依해 惹起된것이라 할 수 있다.⁽¹⁷⁾ 이 要因들이 서로 破壞되지 않고 添加 提携하므로써 産業革命이라고 하는 一聯의 連鎖的効果와 反動을 惹起한 것이다. 故로 後進國에서 産業技術의 進步는 生産의 努力에의 直接的寄與보다는 오히려 그 進步를 適用할 수 있는 諸社會狀況과 條件의 聯關속에서 考察될 性質의 것이다. 왜냐하면 가령 經濟發展의 成敗가 오로지 經濟外의要素中的의 하나인 人間精神의 資源에 依해서만 決定된다면 이 才能의 國際的循環을 逆行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무엇인지 알아야

(16) Income, Saving and the Theory of Consumer Behavior, Harvard Univ. Press, 1949.

(17) Race et Histoire, UNESCO, 1953.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앞으로도 發展할 先進國의 産業工藝學⁽¹⁸⁾이 後進國經濟에게 얼마만큼의 有益한 效果를 줄지는 疑問이다.

後進國經濟成長過程의 障礙要素에 經濟外的이면서도 根本的인 것이 하나 있다. 國內外의 諸機構를 통하여 發表되는 政治·經濟的活動들이나 後進國經濟에 關한 數없는 經濟論說들을 보면 各 後進國指導者들의 發展에 對한 意慾이 誇張되는 印象을 주는 경우가 許多한데 其實은 最善의 方法으로 自國經濟成長에 盡力하는 代身에 國內經濟의 現狀維持나 沈滯를 巧妙히 利用하여서만 既得의 地位와 繁榮을 維持하는 少數經濟集團들의 利益을 옹호하는 政府들을 發見할 수가 있다. 反面 18~19世紀의 英國의 A. Smith 나 Malthus 등을 包含하는 哲學者들은 進步라는 것이 오로지 英國과 그 周邊國家들만의 特性같은 錯覺을 가졌었던 듯 하다. 이와 아울러 多數後進國民들은 植民隸屬에서의 解放과 獨立의 餘波로 因하여 進步란것이 自動的힘을 가지고, 또 經濟成長도 自然히 進行될 것으로 錯覺하고 放置 해둔 感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戰後 約20年이 經過한 오늘날 各種의 統計資料들은 이러한 希望을 根據없는 것으로 만들었고 樂觀보다도 悲觀을 앞서게 한 것이다.

Ⅲ. 農業問題에 關하여

Ricardo 는 그의 時代의 與件에 맞추어 經濟的諸問題를 提起함에 있어서 他經濟要素보다는 土地에게 그 重要性을 부여한 것이다. 果然 當時의 英國人들에게는 食糧을 爲한 支出이 家計에서 첫번째의 位置를 차지했던 것이다. 그런데 1948年에 R.F. Harrod 는⁽¹⁹⁾ 土地를 等閑視할 수 있고 그 影響이 그다지 重大하지 않은 要素로서 取扱했다. 이 두 學者는 모두 그들 自身의 時代의 問題들을 反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事實은 現代의 經濟狀況下에서는 土地에서 利益이 相對的으로 減少될 뿐만 아니라 經濟成長의 結果가 經濟自體를 食糧 乃至 原料面에서 過去에 自然히 부과하였던 限界에서 解放시킬 수 있다는 것도 論證하는 것이다.

그런데 國際적으로 보아 가장 農業的인 國家들이 가장 貧困하고 一個國內에서도 農業의 地域일수록 더 貧困度가 強하다는 明白한 論證에 依據하는 이 理論을 繁榮한다는 歐

(18) "Technology 의 發展"은 發明보다도 넓은 概念을 갖는다. 이말은 同一生産品을 더 少量의 資源으로, 또는 改良된 商品을 同一한 資源으로 生産케 하는 모든 改良을 뜻한다. 따라서 發明은 Technology 의 一部分을 形成할 따름이다.

(19) R.F. Harrod, *Towards a Dynamic Economics*, London, 1948, p. 20:

"I propose to discard the law of diminishing returns from the land as a primary determinant in a progressive economy...I discard it only because in our particular context it appears that its influence may be quantitatively unimportant."

美各國의 農業의 例를 들면서 論難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 歐美各國의 農業도 그 國家들의 全體的인 生産量과 比較할때 小部分만을 占하며 農業生産은 工業生産에 比하여 그 曲線이 相對的으로 下向하고 있는 것이다. 그 以外에도 現時期의 西歐農業은 政治的理由에 依하여 그 發展이 保障되어 있다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²⁰⁾

어떻든 全般的으로 보아서 오늘날 土地에 對한 依存性 乃至는 土地의 重要性은 再言하면 農業經濟는 工業의 發達과 더불어 相對的으로 低調된것 만은 事實이다. 이것은 歐羅巴에서 겪은 것 같은 産業革命이 없으므로 不利한 姿勢로 現在 國際經濟一環에 參加하는 後進國經濟에서도 同一한 것이다. 즉 後進國民들은 150年前의 英國人들이 處分하던 所得보다도 얕은 低所得率로 因하여 工業品의 惠澤은 勿論 생각할 餘地도 없겠거니와 食糧의 滿足한 供給도 없이 그들의 農村經濟는 所謂重農政策下에서도 不振을 免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萬一 農業과 工業의 優先權問題에 있어서 世界市場이 모든 國家間의 平等思想原則下에 絕對的인 自由交換을 實施하였다면 問題는 다른 角度로 發展했었을 것이다. 즉 各 國家는 國際的인 價値로 보아서 가장 有利한 財貨를 輸出하고 必要한 對等價의 他財貨를 輸入할 것이다. 封鎖된 自給自足 經濟下에서도 同一한 現象을 發見할 것이다. 그러나 現後進國들의 경우 經濟發展의 根幹인 工業分野에 主로 置重해야 한다면 農業分野도 또한 그 重要性을 喪失치는 않는 것이며 工業發展의 支援要素로서도 볼 수 있는데 이는 時計輸出에 依하여 보리와 石油를 획득하는 瑞西型經濟構造의 惠澤이 없는 後進國에게 더욱 그런 것이다.

오늘날 아직도 많은 學者⁽²¹⁾나 政治家들은 地球人口의 爆發的增加率이 自然이 供給하는 食糧의 增産率을 超過한다고 믿는 것이다. 이것이 所謂 Malthus主義 乃至는 新 Malthus主義로서 現世界의 食糧不足地域에 對한 運命論的의 思考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科學的 根據에 關하여는 위선 世界總食糧生産과 世界人口의 相互增加率에 對한 UN의 FAO의 統計資料⁽²²⁾가 이를 否定하며 또한 生化學 農學등 自然科學의 急速한 發展은 아직도 地球가 人類에게 提供할 수 있는 資源을 無限히 保藏하고 있음을 證明하는 것이며⁽²³⁾ 實事 Malthus의 效果가 地球의 一部地域에서 進行되고 있더라도 生活水準의 上昇은 相

(20) 小地主들이 無數히 散在되어 있으므로, 選舉政策上 重農政策은 不可避하며, 農民은 保守勢力의 要塞라고도 한다.

(21) 特히 Vogt의 "The Road to Survival," 1948.

(22) Le Monde Diplomatique의 1963年 11月號에 掲載된 FAO의 1963年 10月 22日에 있는 年次報告書에 依하면 世界農業總生産量은 每年 2~3%의 增加를 보이는 反面, 世界人口의 增加率은 2%를 超過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地域的으로 보면 人口增加率이 강한 南美諸國에서의 農業生産量減退, 中共을 除外한 極東地域의 1% 米達로, 極東地域의 滿足한 食糧自給을 爲해서는 現在生産高의 4倍가 必要하다고 한다.

(23) Quel avenir attend l'homme?, Paris, PUF 1961, p. 67에 依하면, 人類가 使用할 수 있는 現在의 技術水準으로도 總可耕面積의 20%만이 利用되었으며, 收穫高도 必要한 資本 技術 勞力을 動員하면 지금 現在의 그것보다 5.9倍가 糧으로 올릴 수 있다 한다. 이런 見地에서 볼 때 南北極地方과 沙漠地方까지도 耕作可能하다면 全地球面積이 人類에게 供給할 수 있는 能力은 現地球人口數의 數倍의 人口를 爲한 食糧도 提供할 수 있다 한다.

對的으로 出生率의 減少를 招來한다는 確證앞에서는 Malthus의 근심 보다는 現代經濟에 關한 限 다른 角度로 問題를 觀察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食糧을 增産하기 爲한 科學의 成果나 可能性의 增加에도 不拘하고 아직도 尙可 耕面積의 20%만이 人類를 爲해 利用되고 있다는 事實은 現代經濟組織의 一大矛盾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勿論 그 原因은 農業에 對한 投資의 不足으로 볼 수 있겠으나 그間 農業이 投資의 對象에서 除外되어가는 이 傾向은 무엇에 起因하는 것인가? 그 根本的인 原因은 農業도 經濟的 mechanism에 依하여 오로지 利潤創出의 對象으로서 밖에 評價되지 않는다는 事實이다. 이는 農産物인 原料나 食糧의 價格과 工業品價格을 比較하면 明白한 것이다. 이러한 價格의 隔差는 往時의 植民地政策의 盛行時節의 遺物로 볼 수 있으며, 土地의 重要性의 減少, 農業에 對한 輕視, 土地의 非合理的使用, 工業部門勞動의 相對的優待 傾向等의 結果를 全世界的으로 傳播시킨 것이다.

如何든 農産物價格의 騰貴는 가까운 將來에는 없을 듯하다. 特히 또한 一後進國이 工業發展에 優先權을 주고 있더라도 決코 農業을 放置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現生産量을 固定的인 것으로 假定한다면 이 生産量의 稀貴性은 人口의 增加든가 國民所得의 增加에 依해서만 結果될 것이다. 한편 食糧外的 消費部分은 個人所得이 增加할수록 增加한다고 생각 되겠으나 其實은 國民所得과 比較할때 農産物消費와 工業品消費는 交叉되는 두 曲線을 形成한다. 즉 極히 低所得層의 消費者의 交叉點까지의 所得增加는 主로 食糧消費에 使用될 것이고 交叉點以後는 工業品消費에 置重될 것이다.

農業構造는 資本 特히 農業內에서 實現된 所得에서 形成되었을 資金의 制限된 機動性에 依해 特徵지을수 있다. 가령 土地의 全部가 開墾된 경우 農業投資는 單位面積當 生産量의 增加를 目標로 할 것인데 土地改良의 限界나 技術投資의 制限의 경우 農業資本家は 새로운 土地를 買入할 것이다. 이경우 그가 投資하는 것은 결국엔 貯蓄의 浪費가되기 쉽다. 즉 極小面積土地의 賣渡人은 生活必需品를 爲하여 土地의 代價를 直接 消費市場으로 流入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IV. 商業問題에 關하여

後進國經濟의 가장 根本的인 特徵中의 하나는 強한 商業化傾向이라 할 수 있다. 즉 企業家所得이 生産의 資本形成에서 結果되지 않고 下記의 諸理由에 基因하여 商品交換을 통해서만 그들의 企業利潤創出을 試圖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傾向은 勿論 生産의 資本形成의 結果도 아니며 根源도아니다. 오히려 商業所得의 高率構成은 이 生産資本形成의 現狀維持 뿐 아니라 그 減少까지도 招來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商業活動은 後進國

의 경우 國家會計에 虛偽的要素까지 內包케 하는데 이는 商業活動이 全體國民所得의 數字를 팽창시키는 反面 國民總生産이나 工業投資를 增加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傾向의 理由들 中 우선 不完全雇傭 乃至는 生産의 職業의 不足에서 오는 單純勞動需要의 不充分한 事實을 들 수 있다. 과연 常用의 商業의 去來를 爲해서는 만드시 特殊한 經驗이나 熟練을 必要로하지 않는 것이다. 反面 大部分의 製造業者나 輸出入商社는 直接 國內原產地生産者들에게서 原料蒐集 또는 製品市場流出을 組織하는데 必要한 費用을 節約하기위해 이 課業들을 仲介人에게 委託할 것이다. 이 仲介人들은 廣大한 失業과 低賃率勞動의 相對的結果로서 生길 必然的인 競業線을 突破하여서만 商業使用人이 아니면서도 商行爲의 代理·仲介를 營業으로하는 獨立商人으로서 行使하게 되는데 그들의 小商人의 性格은 그들의 可用資本額의 過少에 依하여 明白하며 이 無數한 資本의 散在는 各種 各分野의 每商去來를 數段階로 區分케 하고 仲介人의 役割을 縱橫으로 增大시키며 仲介人 全體의 所得額을 팽창시킨다.

後進國內의 商業活動은 또한 他經濟活動보다도 더 큰 安全性을 提供한다. 果然 工業의 企業의 存立可能性은 後進國의 경우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 角度의 利害關係를 調節해야 하는 行政府의 流通의 政策이나 外部勢力의 壓力에 依해서 左右되기 쉽고 調和와 繼續性이 不足한 經濟政策은 工業活動을 事實上 萎縮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工業施設이 莫大한 資本을 固定化시킨다는 事實도 競合한다. 또한 工業이 一定量의 生産에서 雇傭의 彈力性의 幅이 比較的 制限되어 있다면 商業部門의 同一量商品을 爲한 그 彈力性은 實質的으로 無制限하다.

또 한편 自己가 關與하는 部門의 商業活動을 保護育成하여 獨占의 地位까지 提高하려는 傾向은 自己들의 地位나 所得의 改善을 爲한 慾望에 基因할텐데 이런 目的을 巧妙하게도 國民의 一重要部分의 目的과 混同시키는 例는 흔히 볼 수 있다. 이렇게 後進國에서는 商人들이 故意로 市場을 操作하여 自身の 社會的 市民의 道德性을 明白히 誇示함과 同時에 國家經濟安定, 雇傭政策, 그들의 社會奉仕의 重要性, 그리고 各經濟分野나 國家行政, 組合等과의 紐帶등을 主張하면서 自己들 目前에 負課된 不利한 障壁을 反對하고 個人的 利益을 辯護하는 例는 非一非再한 것이다. 또한 行政當局은 經濟的 基盤이 堅固한 商業的 企業體들에게 協助의 待遇를 하면서 國家收益을 爲한 課稅對象의 所得量增加를 助長하는 傾向을 보일 수 있다.

獨占의 地位는 輸入許可制度和 國際的 商標 特許權등의 使用에 依해 더욱 容易해 질 수 있으며 特히 時間經過에 따라 더욱 確固해진다. 그 외에도 確固한 基盤과 充分한 償還能力으로 繁榮이 確實한 企業體들은 先進外國의 資本市場과도 直接 聯關을 가질 수 있다.

이런 狀態는 市場에서 競爭을 試圖할 同種의 他企業體들에게 最大의 難關이다.

過度한 商業化傾向의 가장 큰 弊端은 現實의으로 財貨를 生産함이 없이 購買力을 助長하는 事實에 있다. 特히 肥大해진 商業分野나 活動人口中에서 占하는比率⁽²⁴⁾이 非正常的의으로 크다면 商業人口가 占하는 國民所得分配에서의 比率은 더욱 不條理하게 큰 것이다. 아직도 大部分의 後進國들이 最少限의 食糧經濟의 完全解決을 못하고 工業生産은 不振한 反面 商業活動이 寄生蟲的作用을 한다는 것은 後進國에게 重大한 問題를 提起하는 것이다.

商業이 現代經濟組織에 있어서 分配의 職能을 遂行하므로써 必要不可缺한 것이 事實이라면 그 反面 後進國에서의 商業의 中間利得의 容易한 實現性和 過度한 收益性은 大部分의 活動人口에게 生産의 意慾을 拋棄케 한다는 것도 事實인 것이다. 이렇게 一商業의 企業의 工業部門으로의 轉向은 後進國의 경우 實上 不可能한 일이다.

農業分野에서의 資本蓄積이 後進國經濟發展過程에 積極的役割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商業分野에서도 蓄積된 資本이 대개의 경우 同一企業體內의 自己金融, 새로운 商業의 企業의 設立, 또는 그 期間이나 收益性으로 보아서 틀림없이 非生産的일 수 밖에 없는 貸金等에 使用될 것이므로, 商業資本의 蓄積이 國家經濟에 어떠한 建設的效果를 보일것을 期待치는 못하는 것이다.

貧困한 經濟構造의 土地中心의 不動產財産과 商業資本이라는 두가지 特徵은 後進性脫皮를 爲한 努力에 重大한 內部的障礙物이라 할 수 있다. 또 한편 多數의 商業的仲介人의 存在와 過度하게 肥大해지는 商業活動은 僞裝失業者를 內包하며 生産과 消費間을 分離하는 여러 段階에서 占하는 商業的所得의 지나친 比率은 必然코 低生活水準을 甞치 못하는 消費大衆에게 過重한 負擔을 지게 한다. 結局 上記의 重商的精神에 依해서만 企業家들이 鼓舞되고 相當한 努力과 危險을 겪지 않고서도 高率의 利潤이 保障되는 限 더 複雜하고 不確實한 工業生産活動이 等閑視된다 하여 놀랄 일은 못 될 것이다.

V. 工業問題에 關하여

一企業體의 收益性은 그 企業體가 工業的이라 하여 반드시 社會的收益性 乃至는 經濟全般을 爲한 有用性을 保障한다고 할 수는 없다. 換言하면 한 企業體의 繁榮이 廣義로

(24) Yves Lacoste, Les pays sous-développés, Que-sais-je?, pp. 12 에 依하면, Africa에서 活動人口中 14%, Asia에서 17%, 南美에서 27%가 商業人口라 한다. 또 各國農業勞働者 1人當所得을 100으로 한다면, 商業領域의 一人當所得은 이탈리아에서 230, 브라질 印度 및 日本에서 300, 멕시코에서 700, 土耳其에서 770으로 되어있는 反面 英國에선 100, 캐나다에선 130, 美國에서는 180으로 되어있다.

본 그의 社會的職能上 모든 境遇에 絶對로 經濟的이나 하는 데는 疑問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企業家들에게는 그들의 活動이 國民所得의 内部的分配過程만을 變更시키느냐, 또는 國民所得自體의 增加를 促進시키느냐하는 問題는 別로 關心이 없을 것이며 심지어는 그들의 私的利得造成이 經濟에 不利하고 따라서 國民所得을 間接的으로 減少시키는 行動과 結付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斯種活動의 非合理的 性格도 또한 純全히 政治性을 띤 政府의 財政의 뒷받침(例를 들면 補助金等의 方法으로) 등에 의하여 더욱 더 그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또한 經濟外的 觀心이라든가 誇大妄想의 主張에 依하여 所謂 一部施設의 過度한 現代化에 關한 不合理的 創案들이 一國 經濟政策의 一環으로서 登場하는 境遇가 往往 있는 것이다. 이렇게 限定된 產業部門에의 過度한 奢侈的 現代化政策들은 世界 各後進國家指導者들의 個人的自尊心に 緣由할 수 있고 國民들에게 國家威信이나 經濟開發의 象徴이 되게 하기 爲한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러한 施設들의 收益性에 關하여는 더욱 矛盾이 介在해 있는 것이다. 과연 모든 生産的 活動을 誘發한다는 이 收益性의 豫測은 上記의 奢侈的 投資의 경우 不條理하게 作成되거나, 또는 全然 考慮되지 않는 境遇가 많을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먼저 國內專門家의 不足에도 基因하겠으나 外國經援資金이 介在되어 있는 경우 比較가 안 되도록 發達한 自國의 經濟 scheme에 影響을 받는 外國技術者들의 誤算에도 基因할 것이다. 그런데 後進國에 있어서 上記 現代化方式은 흔히 이 外國技術者들에 依하여 導入됨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이러한 意味에서 一後進國의 經濟發展은 國內資本과 外援資本의 蓄積만으로는 實現될 수가 없으며 이들 資本이 效果的이며 綿密한 計劃에 依하여 嚴正하게 使用된다는 條件下에서만 可能하다는 平凡하고 自명한 論理를 想起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령 現代式 建築物等에의 無分別한 投資는 그것이 비록 産業을 造成키 위한 名目の 것이라도 抑制해야 할 것이다.

그외에도, 適切한 投資政策에 依하여 生産財產業과 消費財產業間의 投資競爭은 防止해야 할 것이다. 이 兩 産業의 對抗은 利己的 動機에 依하여 資本家들에게 高率의 收益性을 보이는 企業에만 投資를 集中하게 하는 結果를 招來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投資統制乃至는 監督을 所謂企業의 自由의 原則과 兩立할 수 없는 것으로서 論難할 수도 있겠으나 如斯한 概念은 그 根據가 薄弱한 것이다. 왜냐하면 外貨使用을 統制해야함과 같이 純經濟的 使命 以外에도 反社會의 效果를 避하기 爲한 投資에 對한 監督 調整의 制度는 論理的일 뿐만 아니라 經濟의 調和의 發展을 爲해 必要不可缺한 것이다.⁽²⁵⁾

(25) EEC의 一報告書(Etude sur la situation économique de l'Europe en 1953, p. 203)는 可用資本 投資의 配分에 있어서의 國家干涉이 必要한데, 그 理由는 最高率利得을 追求하는 私的企業 體들에 依하여 全 EEC 國家團體에게 不利할 수 있는 配分을 強要當하기 쉽기 때문이라 한다.

經濟發展이 아직 初步段階에 있는 後進國에서는 大規模의 投資는 政府自體에 依해서 行해지는 것이 普通이다. 그런데 어떤 經濟政策의 基準보다도 國內政治의 基準에 依하여 政府投資가 方向지워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즉 한 後進國의 行政府가 不安定할 수록 經濟向上을 마치 一社會共同體의 全構成員에게 均等한 惠澤을 주는 것으로 解釋하는 傾向이 있고 따라서 限定된 地域에 對한 經濟計劃의 集中은 殘餘 地域社會에서의 不滿스러운 분위기를 助長하여 政治의 모험을 招來한다고 杞憂하기 쉬운 것이다. 이러한 處地에서는 莫大한 額數가 그 重要性으로 보아서 우선은 等閑視할 수 있는 雜多한 地域經濟建設을 爲해 分散浪費된다고 해서 놀랄 일은 못될 것이다. 그위에다 이 地域經濟建設은 如何든 國家豫算과 直接的으로 關聯되었으므로 國家豫算의 他部門을 爲한 支出增加라든가 租稅收入의 減少가 있는 경우 途中에서 그 遲延 또는 停止를 免치못하기 쉽고, 이는 이미 投下된 資本價値의 減少를 招來하고야 말 것이다.

先進國에서는 勞動要素를 節約하기 위하여 새로운 技術을 發展시키는데 努力을 傾注하는 反面 後進國에서는 生産要素들中 勞動分量을 增加시키고 自然資源과 資本의 部分을 減少할 수 있는 方法을 追求해야 한다는 意見이 있다.⁽²²⁾ 同時에 先進國에서는 後進國들의 陶器라든가 固有의 手工業의 特產品等を 吸收하기 爲하여 需要增大策을 講究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忠告는 經濟的繁榮에 到達하려는 後進國들의 努力을 挫折케할 수 있는 阿片과 같은 性格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後進國의 經濟問題는 人工的으로 勞動需要를 創造하면서 失業을 再吸收하는 問題보다도 經濟成長의 蓄積的過程에 到達하는 問題인 것이다. 同種의 意見을 主張하는 A. Lewis⁽²⁷⁾에 依하면 工業의 誕生을 본 西歐에서는 工業은 手工業과 小規模製造工業의 幟에서부터 發端했으며 手工業的勞動은 技術的熟練의 貯藏的役割을 했다 한다. 그런데 資本의 稀貴性때문에 더욱 後進國의 類似한 處地는 Lewis 교수에게 小規模製造工業을 獎勵케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推理는 여러 發展過程段階를 縮小시키고자 한 後進國民들의 欲求에 對答해주지는 못한다. 果然 後進國經濟가 既知의 歐洲式模型에 依하여 漸進되어야 하고 또 이런 方式의 向上이 可能하다고 한다면 今日的 後進國經濟와 先進國經濟間에 介在하는 隔差는 不變數로 變할 것이 아닌가, 더구나 어떤 特定の 境遇를 歷史에만 照會한다는 것은 不條理한 것으로 보인다. 과연 西歐經濟들은 그들이 바로 先驅者였기 때문에 지금 알려지고 있는 幟 scheme을 履行 해온 것이다. 他面 점점 더 標準化된 生産品(standardized products)으로 指向하는 先進國民들의 現今의 需要性格은 趣味·個性·藝術性等의 特徵만을 生命으로 하는 商品들을 消費할 姿勢를 取하

(26) Buchanan and Ellis, Approaches to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1955, p. 46.

(27)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London, 1955, p. 137.

지 않는다. 그러면 小規模製造工業은 標準化된 生産品의 大量需要가 없는 곳에서는 적어도 그 販路를 開拓할 수 있다고 하나⁽²⁸⁾ 萬一 如斯한 需要가 實在하더라도 이는 주로 奢侈品 顧客의 慾望에 基因할 것인데 그 販路가 不確定하며 消滅途中에 있는 이 商品들의 製造 設備과 擴張을 經濟팽창의 一方法으로 생각할 經濟學者는 없을 것이다. Habakkuk⁽²⁹⁾는 한편으로는 西歐産業化가 不過 小額의 貯蓄에서 始作하고 資本蓄積이 消費水準低下를 強要하지 않았고 發展過程의 例를 든다면 英國에서는 2%가량 이었던 年所得增加의 競合에 依해서 維持되었다 하며 또 한편으로는 資本蓄積 그 自體가 經濟發展에 對하여 그렇게 까지 絶對的影響을 作用한다고 믿을 수는 없다 한다. 萬一 科學者들이 強度의 勞動으로 하여금 資本을 代替하게 하는 새로운 生産方法을 研究해야 한다는 Buchanan 과 Ellis의 示唆를 上記한 理由 때문에 反對한다면 未雇傭勞動力이 豊富한 나라들이 적어도 工業化까지의 期間은 그 性格自體가 높은 勞動·生産量關係를 要求하는 工業들에 專門化해야 한다는 것은 至當할 것이다. 이러한 作戰은 勞賃의 低率의 惠澤에 依한 輸出增大와 不完全雇傭解決은 圖謀하는 것이다.

産業化試圖가 不幸히도 挫折된 後進國들은 그 失敗에도 不拘하고 새로운 産業構造의 模型을 좀 더 容易하게 選定·計劃·實現할 수 있다는 事實로 하여 勇氣를 얻을 수도 있겠다. 더구나 이미 投下된 資本額이, 이러한 경우에는 그다지 重大하지 않겠기 때문이다.

또한 後進國들 中에는 利用되지 않고 있는 工業能力을 갖는 경우가 있다. 過度한 所得分配의 不均衡이 國內工業產品에 對한 需要를 相當히 減縮시킨다는 것이 事實이라면 他要素들도 이런 狀態造成에 參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要素들中 우선, 그리고 特히 生産을 恣意로 制限하는 獨占의 氣質을 들 수 있다. 과연 企業家들은 利己의 動機에서 必要한 경우엔 生産을 稀貴化함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또 異質의인 要素로서 現代工業生産의 性格에 起因하는 事態를 들 수 있다. 즉 現代工業生産은 多樣한 諸種技術들을 合된 複合的單位로서 最少限의 複合의 要素를 具備해야 하는데 後進國經濟成長過程의 初期段階의 期間동안은 그 工業施設을 最適度로 活用한다면 대개의 경우 微弱한 購買力에 依한 全生産量의 吸收는 不可能할 것 이므로 相對的過剩生産을 招來한다는 事實이다. 끝으로 美國援助의 受惠後進國에서 볼 수 있는 要素를 들 수 있다. 즉 이 受援國家의 企業家들이 매한히 有利한 條件下에 提供되는 資金貸與를 획득할 慾望으로 事前에 何等의 市場展望이나 豫測을 實行함이 없이 모든 種類의 策略을 使用하는 傾向을 보는데 그 結果로서 一部 生産部門은 生産施設의 不足을 느끼는 反面 他部門에서는 生産能力이 完全히 活用되

(28) Lewis, *ibid.*, p. 138.

(29) The Historical Experience on the Basic Conditions of Economic Progress, p. 161.

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VI. 經濟成長過程의 資本調達에 關하여

1. 第 1 側面

後進國에서는 工業의 企業의 數가 制限되어 있겠으므로 獨占의 市場의 視角에서 推理함이 妥當할 것이다. 이 獨占이란 말은 一定種類의 生産品을 提供하는 企業이 唯一하거나 少數企業體들이 各己 制限된 生産能力을 가지고 地域의 散在되어 있는 狀態를 뜻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獨占到 關하여는 大體로 두가지 理論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獨占은 後進國經濟構造의 改革을 妨害한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無競爭狀態는 一般的으로 費用의 減少와 生産의 合理化에 依하여 經濟發展을 促進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先進國의 경우 獨占形成은 흔히 諸企業의 聯合 또는 弱體企業들을 除去하는 競爭에서 結果되며 이 競爭은 豊富한 資本과 市場擴大에 依해 助長된 提高되고 經濟成長의 빠른 速度에 依해서 強力히 惹起된다고 할 수 있다. 그 反面 後進國家에서 當面하는 獨占構造는 대단히 相異한 根源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어떤 獨占組織은 그들의 創設條件으로 어떤 獨占의 特典을 위한 立法的 保障을 要求한다. 또 한편으로는 數個部門에서 經濟成長의 弛緩된 리듬(rhythm) 資本의 稀貴性 새로운 企業을 持續시킬 만한 需要의 不充分性등의 理由에서 競爭이란 것이 全然 作用하지 않는다. 끝으로 이미 設立된 少數企業들은 國家經濟가 그들의 利益에 不利한 措置를 取함을 防止하기 위하여 國家權力에게 壓力的이거나 적어도 深刻히 影響을 줄 수 있는 強力한 壓力集團을 形成하므로써 獨占의 地位를 享有한다. 그들의 安全은 과연 現形勢유지에 連結되어 있고 그들의 地位는 經濟發展과 더불어 不安定해 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理由로 企業家들이 그들 스스로의 活動範圍 안에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他產業分野에서 까지도 競爭을 制限하기 위한 支援을 가져올 수가 있다. 이런 策略은 相互連帶의 精神에서 보더라도, 또 그렇게 하는 것이 獨占自體가 自己利益에 向背됨을 알면서도 經濟向上의 힘이 될 수 있는 모든 狀態를 妨害하는데 目的이 있을 수 있다. 如何든 國家權力이 經濟發展의 動態的 展望을 갖지 않을 수 있다면 私의 企業家들이야 말로 全體利益에 相反되는 것에는 介意함이 없이 그들의 現實의 利益이 要求하는 必要한 모든 措置를 豫測하고 取할 것이다.

J.K. Galbraith⁽⁸⁰⁾ 교수에 依하면 先進國에서의 獨占組織은 市場에 相反되는 곳에서의 相殺力(countervailing power)과 平行으로 成長하였다고 論證하면서 그 例로 勞動組合 協同會社등을 들고 있다. 즉 換言하면 獨占成長은 獨占漸增의 世界에서 auto-regulator 的機構를 構成하는 相殺力의 形成을 同時에 助長한다는 것이다. 後進國經濟問題·與件과의 相異

(30) American Capitalism—The Concept of Countervailing Power, Boston, 1952, Ch.X, XI.

는 이 後進經濟에서는 대개의 경우 獨占形成이 激烈한 競爭力들의 勝負에서 結果되지 않고 競爭機能以前에 存在하며 그의 強力한 利權이 經濟生活을 支配하고 靑로를 수 있는 모든 構造變形을 沮止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다.

獨占構造의 論理의 結果로서의 生産單位當高利潤率은 初期經濟成長過程을 特徵짓는 高利率子의 作用이기도 하다. 이렇게 生産費用計劃設定時 그들은 그리고 獨占의地位에 있지 않는 企業家들까지도 利潤의 固定率을 事前에 計算하는데 비롯이 되어있다.⁽³¹⁾ 거기에서 過度한 利潤率을 隨伴하는 獨占의狀態는 勞動報酬水準을 重壓하는데 一般的으로 後進國에서는 모든 勞賃上昇은 不可避하게 價格의 螺旋線(spiral)을 招來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또한 많은 後進國勞動組合의 意見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概念은 根本的으로 不正確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獨占의 程度가 零點에 있지않는 以上, 卽 完全競爭의 保障이 없는 以上 勞賃의 增加가 一般價格水準을 提高시키지 않는 것이 可能하기 때문이다. 즉 價格構成에 있어서의 利潤率이 勞動力部分을 爲하여 壓縮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事實上으로 보면 名目上의 安定이나 利潤部分의 膨脹에 對한 勞賃의 相對的減少等の 反對傾向만을 보게된다. 佛國의 Échelle mobile(移動階段)制度에 依하여 具體화된 理論과 같이 勞賃이 價格水準線만을 追從하면 公平無私하다고 主張하는 것은 根本的으로 矛盾일 것이다.⁽³²⁾ 一面에는 이것이 社會的勝利(勞動組合등의 要求貫徹)를 形成하지만, 勞動者가 生産力增加에 對한 權利를 갖는 것은 否定할 수 없겠고, 그 國民所得增加部分이 完全히 投資의 目的에 使用되지 않는한 모든 生産力增加는 貨幣安定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면 勞賃水準의 對等한 提高를 正當化하는 것이다. 反面 現實的인 勞賃의 非增加와 非勞動者에 依한 國民所得增加部分의 獨占은 바로 所得分配의 不均衡擴大와 國民生産의 下落과 輸入增加 등의 現象을 나타낼 수 있고 그 結果 인플레이를 挑發할 수 있다. 과연 모든 國民所得下落은 需要의 增加가 無彈性인 生産機構에 供給의 surplus를 要求할 순간에 明確해질 貨幣의 不均衡의 根源을 內包하는 것이다. 그런데 裕福한 階層에 依한 生産力增加利得의 獨占에서 結果될 所得分配不均等의 增大는 國民消費水準을 提高케하는 誇示效果過程으로 引導할 것이다. 거기다 非生必需品의 모든 輸入은 輸出의 無彈性에 基因하여 外貨의 出血을 要求하고 이는 落後한 國家經濟에서는 國內貨幣安定에 直接的打撃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리고 輸入이 制限되어 있다 해도 이는 價格에 對하여 直接的으로 效果를 보이는 投機的壓力을 發生케한다. 萬一 價格安定에 變함이 없다면 勞賃의 改善은 總消費支出에 對한 그리고 國內產品의 需要增加에 對한(이것은 後進經濟成長段階에서 工業品生産에 次급

(31) Chombert, Structure économique et théorie monétaire, Paris, 1956, p. 235 에 依하면, Brazil의 São-Paulo의 256 個會社의 資本에 對한 純利潤率은 34%, 그中 25 個會社는 100%라 한다.

(32) 後進國勞動組合의 要求는 主로 勞賃의 實質의水準의 유지에 만 있는 듯하다.

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間接的으로 資本의 現實的需要에 對한 積極的效果와 함께 國民所得의 再分配를 結果할 것이다. 거기다 勞賃上昇은 새로운 生産力增加에 對한 자극제라 할 수 있다. 즉 勞賃이 勞動者의 社會的負擔보다도 앞다면 그의 모든 消費增加는 그의 肉體의 生産能率을 자극할 뿐 아니라 그들의 生活을 보장해 주는 企業體와 相互連帶感을 갖게 하므로서 企業家들이 支拂한 代價를 補填하기 위한 勞動者의 努力도 자극할 것이다. 勿論 生必需品數가 非彈力的인 社會에서나, 혹은 餘暇가 그 活動의 重要한 部分을 占하든가 또는 個人이 그의 支出이 固定되어 있으므로 그의 所得을 增加할 必要가 없는 경우에 勞賃의 모든 現實的增加는 오히려 努力의 自發的減少를 招來할 것이다. 그러나 如斯한 일은 後進國에서는 事實上 存在하지 않을 것이고 또 經驗있는 企業家들은 이런 일이 發生치 않게 할 것이다.

經濟的 社會的으로 希求될 수 있는 上記에서 分析한 生産力과 勞賃關係의 正比例的向上은 勿論 貨幣安定에 依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價格騰貴는 需要인플레이가 있는 경우라야만 生産力增加와는 關係없이 勞賃上昇을 不可避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事態는 獨占의 또한 非獨占的利潤의 下向으로의 非彈力性을 助長할 것이다. 또한 豊富한 需要의 缺乏은 새로운 勞賃을 負擔할 利潤率의 低下 乃至는 企業家가 在庫品이 過度로 이미 팽창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在庫品增加라는 過渡的解決策으로 引導할 것이다. 가령 이 在庫增加의 可能性이 留保되고 利潤無彈力性向이 強하다면 消費增加는 豫想되는 未來의 發展速度와 比例로 絕對的 또는 相對的 生産低下를 招來할 것이다.

萬一 何等의 行政府壓力이나 市場의 作用에서 오는 壓力이 介入되지 않는다면 獨占的地位에 있는 企業들은 아마 그들의 位置가 危險한 경우에야 勞賃을 爲하여 그들의 利潤의 一部分을 自發的으로 희생하는데 同意할 것이다. 또한 이 企業體들은 그들의 特惠的地位를 유지하기 爲하여 勞動者들의 協力과 支持를 보장받는데 努力할 것이며 그들의 勞動者들은 雇傭主들과 함께 利潤의 分配에 參加하는 同僚的立場에 서게 될 것이다. 이 限定된 一部 勞動者의 所得增加는 다음에는 相異한 諸經濟部門間의 勞賃의 既存比例關係를 改定하게 되고 結局은 特히 直接的競爭相當企業에서의 一般的勞賃上昇의 傾向을 보일 것이며 그 다음엔 産業部門全般에 빠른 速度로 反響할 것이다. 이 分析의 主要 idea의 如斯한 進展은 工業分野와 他經濟分野의 勞賃間 隔差增加의 方向으로 이끌고 이 隔差는 또한 工業이 勞動人口의 大群衆에 對하여 保障해야 하는 工業的特性을 增加시키는데 있다.

先進國에서의 利潤의 役割에 關하여는 一般的으로 그 效用이 認知되어 있다. 즉, 先進經濟에서는 利潤의 形成이 生産品 價格을 低下시키는 結果를 가져올 擴大再生産을 爲하여 追加生産要素를 誘發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後進國獨占體들이 그러한 有益한 企業들이라는 確證은 없다. 이렇게 妥當한 水準에서 分配될 勞賃을 위하여 利潤을 遮斷한다는 것이

不利한 資源配分과 潜在的富의 喪失을 發生시킨다고 할 수는 없다.

落後된 經濟構造는 여러 矛盾의 複合으로서 特徵이 進다. 過度한 奢侈의 現代化以外에, 그 正反對現象은 더한층 不安한 일이다. 즉 어떤 企業은 未來의 新企業體들과 一定段階에서 競爭할 수 있기 爲하여 原始的施設을 가지고 勞動하는 것이 가장 收益的이라고 推算한다. 이 新施設時期까지의 隔差는 그 나라의 經濟成長 그 自體에 依해서 決定될 것이다. 그런데 一國의 工業裝備率은 公私間의 新企業의 創設率에 依하여 上昇할 것이며 一國의 工業能率은 그 國家經濟成長의 結果란 것을 肯定할 수 있다. 그러나 根本的인 錯覺은 後進國에서는 이 數個의 工業單位가 國民生産機構를 바로 팽창의 길로 이끈다는 一般的으로 普及된 信念에 있다.

이 數個의 特惠의 工業單位들에 가장 큰 危險은 大部分 財政的面에 있다고 생각된다. 實際로는 長期的으로 工業分野에 資本을 貸與할 수 있는 金融市場이 없는 경우 이 工業分野는 主로 自己金融에 依해 發展을 期하는 것이 普通이다. 國內 貨幣價値의 不確實性에 依해서도 助長되는 이 自己金融의 方法은 家族企業이 優勢한 經濟下에서 特히 盛行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如斯한 方法은 諸種投資에 對한 滿足스러운 配分을 許用할 性格의 것이 못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利潤形成은 全然 그 企業의 社會的能率의 證據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方法은 많은 後進國政府들이 配當되지 않은 利益金에 對한 租稅面에서의 特惠를 줌으로서 助長되기도 하고 政府의 經濟的補助가 利潤의 再投資를 條件으로 割與되는 경우가 있다.⁽³³⁾

흔히 後進國에서는 眞實한 銀行運用이 存在치 않는다고 한다. 또 銀行機構는 常用的 商業的인 方法과 目的에 依하여 經濟成長過程進行에 큰 障礙를 構成할 수 있다. 즉 經濟政策을 長期的의 眼目으로 理解하고 또 計劃의 利益(豫想되는 利潤보다도 經濟的使命에서 본 利益)을 보아야 할 것인데 銀行들은 그들의 狹小한 性質, 償還支拂能力이 있는 顧客의 探索, 手數料나 其他 有無形의 可能한 高利率을 支給해주는 企業體에의 關心集中, 3個月이나 6個月等의 短期貸付에의 偏重등에 依하여, 비록 故意는 아니겠지만, 그들의 方法은 國家의 經濟的課業에 全面的으로 背馳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短期貸付에의 置重은 또한 가장 重要한 經濟活動의 하나가 外國과의 交易이 었던 後進國의 經濟史의 結果이기도 하다. 즉 이 短期信用은 한편으로는 投機를 爲한 stock 나 인플레이壓力에 對한 逃避를 許用하고 또 한 편으로는 一部商人들의 小集團에게 輸出入商業에 있어서의 獨占的地位를 維持하도록 助長하는 것이다.

(33) UN, Méthodes permettant de financer le développement économique des pays insuffisamment développés, New York, 1949, p. 5.

銀行의 上記傾向은 또한 受信의 不足 즉 預金不足에서 온다. 그러나 信賴를 造成하는 方法으로 自發的 貯蓄을 創造함에 成功하였다 하여도 銀行들은 長期的인 資本貸與를 하므로서 經營發展에 協力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萬一 銀行들이 그들이 받아들인 豫金の 性格에 依據하여 信用政策을 樹立한다면 後進國에서는 貯蓄같이 不安定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UN의 一報告書⁽³⁴⁾는 이런 意味에서 대단히 暗示的이다. “前工業的經濟의 農業·商業部門에 奉仕하려고 創造된 既存經濟機構는 深刻한 變革이 있고서야 工業化로서의 有效適切한 器具가 될 것이다”. 그 反面 後進國銀行들이 겪는 現金性 不足은 이 銀行機構들이 貨幣的見地에서 볼때 中性的의 役割만 하는 것일 뿐 만 아니라 또한 私的顧客들인 預金者들에 基準을 두지않는 모든 銀行政策들은 政府權力에 依하여 左右되게 된다.

어떤 著者들은 資本形成의 形象을 이렇게 描寫했다. 즉 自己環境에 適應한 어떤 平凡한 一個人이 小額을 貯蓄하면서 漸次 그의 處地를 改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 우선 더 以上 壓縮될 수 없는 消費水準보다도 더 낮은 消費水準에 當面하게 되고 그다음 經濟成長過程이 infrastructure의 投資를 履行하기 爲한 巨額資本을 必要로 하는것 등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여기서 問題되는 것은 그 一個人이 自己의 生産能力을 改善하기 위해서 더 貯蓄하는 것이 아니라 個人이건 同業組合이건 政府機構이건 國際機關이건 間에 高額을 要하는 計劃作成을 爲해서는 莫大한 資本을 準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대한 努力은 어떤 後進地域에서든지 消費의 副產物로 考慮될 수 있는 私的 自發的貯蓄의 規模로서는 不可能할 것이다.

後進國에서는 不幸히도 너무나도 흔히 資本主義世界의 價値守護와 私的利慾 및 感情的 要素에서만 그 正當化를 發見할 수 있는 舊態의 保守主義形態를 混同하는 것을 본다. 즉 資本主義經濟制度가 가령 後進經濟構造에 그렇게 널리 普及되고 固着된 家族企業의 原則을 뜻하지는 않는 것이다.

또한 後進國에서는 上記한 바와 같이 後進國民들의 先進國民들 生活水準과 狀態에 關한 漸增하는 知識과 模倣은 貯蓄의 大障礙物이 아닐수 없다. 이런 要素는 必需品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財貨의 目錄을 限없이 增加시키는데 있다. 또 所得分配의 不均等이 增大해 질수록 誇示效果의 傾向은 높아지므로 消費의 相互依存性은 後進國에게 心理的影響에서 오는 貯蓄減少에 더욱 拍車를 加하는 強한 要素인 것이다. 外國影響의 後進國民에게의 浸透性은 이 後者의 所得의 絶對水準에 依하겠으나, 즉 所得水準의 上昇과 더불어 誇示效

(34) Méthodes et problèmes de l'industrialisation des pay sous-développés, New York, 1955, p. 43.

果도 強大해져서 消費增加에도 壓力을 加할것이나, 이 橫倣에서 오는 消費傾向은 所得의 絕對値에, 그리고 또 所得分配의 不均等擴大에 따라서 慢性的危險을 떠우게되는 것이다. 이 後進國에서의 誇示效果의 連鎖의 認定은 平均所得이 膨脹할 수록 貯蓄率도 增加한다는 Keynes의 原則을 弱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關하여 戰後 美國經濟援助가 後進國에서 한 役割에 關하여서 본다면 美國經濟繁榮의 善行을 普及하기 爲한것으로도 볼 수 있는 이 美經援은 새로운 消費習慣을 뿌리 박은 것이다.(美國式現代化方式을 除外하고도). 勿論 不斷한 消費에의 자극은, 高景氣水準을 維持하기 위한 美國 經濟政策의 緊要한 一環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고, 그러나 無意識의 으로 後進地域으로 過度한 消費傾向을 輸出했다는 것은 이런 政策이 不完全雇傭의 增加를 招來하였다는 點에서도 어마어마한 矛盾과 넌센스에 해당하는 것이다.

生産의 投資源調達을 爲한 自發的貯蓄의 결핍 乃至는 下向의 傾向은, 所謂 資本主義的私的 initiative의 制度가 어떻게, 資本主義制度自體에 深대한 影響을 주는 危機를 모면케 할 수 있을까 하는 問題를 생각하게 한다. 즉 不充分한 自發的貯蓄의 問題와 強制貯蓄에의 呼訴의 必要는 必然的으로 個人의 手中에 있었던 生産手段所有를 國家에의 方向으로 轉移하게 함을 內包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政府出資企業이 initiator와 자극제의 役割을 過渡期間동안 代行할 것인가, 또는 오늘날의 이 後進國狀態가 그들 經濟制度의 完全한 改造로 이끌 것인가는 歷史만이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이다.⁽³⁵⁾

萬一 過去에 蓄財(Thésaurisation)⁽³⁶⁾ 現象이 貯蓄의 極히 一小部分만에 影響을 미쳤다면⁽³⁷⁾, 그리고 그 原因이 經濟外的인 것이 있었다면, 오늘날 後進國들은, 程度의 差異는 있어도, 그 보다는 훨씬 더 重大한 立場에 當面하고 있다. 즉 오늘날 普及되고 있는 이 蓄財의 性格은 우선 그 量의 重要性에 있고, 다음으로는 적어도 改善된 經濟與件이 安全性과 收益性의 滿足스러운 條件下에 이 蓄財가 生産的方法으로 使用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消費는 決定的으로 延期된다는 事實에 있다. 그러나 이 蓄財性向이 높다 하여도 一部少數層

(35) EEC의 Report of the Export Group o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Southern Europe, E/ECE/233, Add. p. 95(Papanicolaou의 “經濟發展”內에 引用된것)에 依하면 1955~1964의 期間을 爲한 Vanoni plan은 南部伊太利의 工業化는 主로 政府出資로 그리고 殘餘製造工業은 私的企業體에 依하여 履行된 것으로 보고 이 後者가 充分한 實績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 그 領域도 政府責任下에 들 것을 豫見하고 있다.

(36) Thésaurisation은 消費되지않은 貨幣나 高價物을 寶物로서 저장해 두는 行爲로 볼 수 있다.

(37) J.B. Say, Mélanges, p. 214: 守錢奴가 金庫에 貯藏해두는 金額과 같이, 生産의 으로 消費됨이 없이 蓄積된 價値에 關하여는, Smith나, 나나, 또 아무도 이를 변호할 사람은 없으며, 또 이 蓄財의 量이 國民生産資本의 量에 比하여 過少하고 그 蓄財의 消費는 永遠히 停止의 있으므로 全然 두려운 일 이 아니다.

에만 限定되어 있음은 勿論인데 그 理由는 大多數人口는 低所得層이므로 그들의 所得金額을 消費할 것이기 때문이다.

Buchanan 氏에 依하면⁽³⁸⁾ 南美와 其他 몇몇 後進地域에서 인플레이는 地方病的이어서 蓄財現象은 大規模로 이 인플레이를 相殺하므로써 公共利益에 有益하다고 보고 있다. 과연 그렇다면 이것은 蓄財者가 인플레이費用을 好意로 支拂함과 같을 것인데 貧困經濟의 모든 不安을 겪어서 自己利益을 보호함에 經驗이 많다고 생각될 後進國의 蓄積者가 그러한 損害를 甘當할 理는 없겠다. 오히려 이 인플레이야말로 廣範圍하게 慣行되는 蓄財의 原因이며 結果일 것이다. 따라서 流通法貨의 蓄財形態는 인플레이下에서는 不利한 것이며 結局은 財貨의 stock 나 貴金屬等的 保藏이던가 安全한 外貨 및 安全이 保障되어있는 外國에로의 外貨搬出等的 形態를 取하게 할 것이다.

蓄財運動의 發生原因은 인플레이의說明 以外에도 通貨政策의 不完全性에서 찾을 수 있다. 後進國에서의 競爭下에서 利率은 危險의 可能性과 資本의 稀貴性의 作用에서 決定된다고 할 수 있다. 이 危險可能性에는 過去의 인플레이經驗等에서 오는 主觀的原因과 貨幣價值切下에 對한 心理的保證으로서의 premium 또는 市場과 政局不安定等的 客觀的原因등을 包含시킬 수 있다. 또한 이 premium을 除外하더라도 自由主義學派가 取했던 立場은 이미 適用되지 않을 것이다. 즉 高利率은 오히려 資本의 高生産性보다도 資本의 稀貴性에서 結果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資本 획득에 必要한 價格은 資本의 能率 즉 限界生産力과 合致하지 않는다는 이 事實이 完全競爭下의 貧困經濟成長을 沮止하는 것이다. 慣行은 이 不安한 狀態에 새로운 不便을 附加한다. 즉 利率의 自由形成을 防止하는 立法的措置라는 人爲的方法의 導入은 資本의 可用性을 增加하기 爲해서 經濟法則이 提供하는 自然的刺戟濟를 中性化하는 것이다. 또한 利率의 市場作用에 依한 自由形成으로의 (즉 生理學의 自然水準으로의) 還元은 아마 蓄財財貨의 一部分을 貨幣로서 流通시킬 것이며 더 有利한 場所를 追求했던 財産들도 再入國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資本의 二重의 市場은 投機的・寄生的投資를 助長함과 同時에 奸商輩들에게 不合法的資本調達을 許容하게 되는 만큼 經濟에 不利하다고 할 수 있다.

投機的活動은 그것이 비록 外樣으로는, 蓄財의 原因인 安全性希求와 矛盾되지만 其實은 類似한 動機에서 說明된다. 즉 如斯한 活動이나 去來를 特徵짓는 資本의 回轉速度는 흔히 不動中の 資本에게 빠른 流通性을 保障하며, 特히 不確實한 時期에는 그 利益이 클 수 있다. 그 外에도 工業的去來에 比하여 投機的去來는 그 計劃과 實踐에 있어서 極히 簡單하다는 利點이 있는데 다가 課稅나 大部分의 法的措置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이에 對한

(38) Approaches to Economic Development, 1955, p. 302.

國家의 干涉은 勿論 그 實效를 견을 수 있겠으나 經濟法則의 惠澤을 받기위해서는 그 經濟法則을 잘 遵守해야 한다는 것을 想起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發展을 爲한 심중한 課業이 通貨安定이란 先行條件下에서만 可能하다는 것은 一般的으로 認定된 原則인듯 하다. 그런데 後進經濟에서의 通貨의 安定度는 대개 稀少한 것이다. 이렇게, 가령 新紙幣의 發行의 경우, 이 增加部分은 利率低下, 投資促進, 價格騰貴를 招來할 活氣增加등의 迂路를 使用치 않을 것이다. 즉 “銀行券은 印刷되자 곧 價格上昇을 要求하기 爲하여 商店으로 달려갈 다리는 없다”라는 J. Robinson의 有名한 말을 여기면서 이 新發行紙幣들은 發行에서 인플레로 通過하기 爲한 더 效果의이고 빠른 길을 擇할 것이다. 또한 여기서 論하는 scheme에서는 인플레의 結果를 決定하는 것은 經濟活動增加보다는 오히려 紙幣와 價格騰貴와의 關聯에서 본 現金性 乃至는 그 容易性의 程度일 것이다. 더구나 바로 이 liquidity에의 追求가 資本의 商業的去來로의 轉入傾向 不動產去來 또는 工業이나 一般的長期資本調達을 爲하여 投資되는 代身에 短期的商業貸付에로 指向케 하는 것이다.

資本價格이 過度로 높다는 것은 또한 高率의 獨占化에서도 結果 된다. 卽 獨占의 高利率은 資本이 生産的投資를 爲하건 非生産的의 商去來에 投下될 것이건 간에 金利를 올린다. 그 反面, 高金利는 同種 同型의 新企業의 創設을 困難케 할 것이며, 혹은 國內의 需要不充分的 理由로 一般的으로 그 創設은 資本의 喪失을 뜻 할 것이다.

發展計劃의 高度한 專門化와 그 計劃을 實現하기 爲하여 必要한 資本의 量的重要性과 併行하여 後進國에게 資本을 供給하기를 주저하는 外國經濟家들의 결집은 새로운 問題를 提起한다. 이 計劃은 그 實現을 爲해서는 經驗과 資本이 豊富한 外國企業體에 依해서만 可能할 수 있는 性格의 것이다. 이렇게 이 計劃實現을 爲해서는 必要한 資本額의 調達可能性을 追求해야 할 것인데 그렇다고 富強한 國家의 銀行들에 依해서 간혹 提供되는 信用에 지나친 期待를 걸수는 없을 것이다. 즉 商業 特히 輸出商業이 外國資本의 支援을 享有한다면 大部分의 生産을 國內市場으로 流出케 할 國內工業이 同一條件의 安全性을 提供하지는 못 할 것이기 때문이다.

infrastructure에의 投資는 그 貨幣의 收益이 市場에서 形成되는 利得率과 競爭할 餘地가 없으므로 比較的非生産的이라는 印象을 주기 쉽다. 그러나 이 投資收益이 國家全體에 散布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infrastructure 投資를 가령 社會的性格의 것과 純經濟的性格의 것으로 區分한다면, 이 後者의 경우는 一般的으로 貨幣面에서도 收益이 保障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個人企業들이 如斯한 initiative를 企圖하지 않는 理由는 이 工事들이 經濟不安定에서 오는 高率의 危險을 除外하고서도 莫大한 資本을 固定시킨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이런 種類의 工事費用은 機械設備을 除外한다면 後進國에서는 比較的 財政的負擔을 減少할 것인데 莫大한 勞動力의 必要로 因하여 先進國의 그것보다는 低廉하다는 것을 想起해야 한다. 如何든 이 面에서 政府投資의 價値가 더욱 뚜렷해 질 수 있다. 또 infrastructure를 가령 自動減價償却部分(auto-amortizable infrastructure: 例를 들면 電氣生産, 鐵道等)과 非自動減價償却部分(non-auto-amortizable infrastructure: 教育, 職業養成, 保健等)으로 區分한다면 前者에 關하여 理論적으로는 借款등의 支援에 依한 이 資本調達은 國民生産力을 增加케하는 各支出이 減價償却費用을 負擔할 것 이므로 그 解決이 더욱 容易할 것이다. 그러나 後者の 경우 一般的으로 그 收益의 어떤 部分도 國庫에 蓄積되지 않을 것이므로 이런 경우 國家는 私의 企業에게나 納稅者에게 이 계획에서 獲得되는 利得을 納得시키고 國家負擔의 相當額에 依해 負擔될 租稅政策을 正當化해야 할 것이다.

外國資本을 誘引할 수 있는 可能性을 檢討하면서, 否定的側面도 考慮해야 할 것이다. 즉 後進國에서는 先進國에게 資本利子和 諸費用들의 支拂에 好感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後進國을 爲하여는 終戰後 美國政府의 經援이 國際的인 資本循環을 大部分 代替한 感이 있다. 그러나, 이 前例없는 經援이 消費性向提高를 招來한 事實以外에도 그 有用性이 疑心스러운 方面으로 注力됐다는 事實은 莫大한 後悔를 느끼게 한다. 너무 高度로 資本主義的이나 商業的으로는 別로 興味の 對象이 못되는 이 infrastructure의 缺乏으로 因하여 經濟成長에 支障을 받는 後進國들에게 美經援은 既存企業의 擴張이나 새로운 製造工業의 創設에 資本供給을 集中하므로써 國內資本市場과 競爭을 惹起시키고 不均衡經濟條件을 利用하는 投機的性格을 間接적으로 助長하고 또한 國內에서 生産되지않는 原料로만 稼動하는 工業施設들의 增加로 外貨需要를 漸增시켜 온 것은 美經援의 目的이 後進國의 不足한 國內資源을 動員시키기 爲해 必要不可缺했었을 根本的인 經濟·社會의 變革을 斷行치않고서 經濟發展을 約束하기 위한 것 이었음을 想起할때 너무나 明白한 矛盾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2. 第 2 側面

後進國에서의 租稅收入增加는 一般的으로 보아서 國內資本으로서 使用 가능한 總額이 徵收된 租稅收入의 合計 만큼 더 增加하는 것이 아니라, 私的貯蓄을 減少시키는 結果를 招來할 수 있다는 意見이 있다.⁽³⁹⁾ 그러나 私的貯蓄減少部分은 貯蓄에 充當되는 所得部分만이 租稅收入으로 轉入하는 거의 不可能한 境遇以外에는 租稅收入增加와 同等해 지지는 못 할 것

(39) Développement économique des pays insuffisamment développés (Méthodes à suivre pour accroître l'épargne interne et en assurer l'emploi le plus avantageux aux fins du développement économique), New York, déc. 1949, p. 10.

이다. 如何든 個人에서 政府機關으로의 可用資本移轉은 徵稅가 만드시 消費減少를 招來하지 못한다해도 投資를 爲한 可用資源의 더 能率的使用을 容易하게 해주는 뜻에서 高度로 有益한 일이다. 과연, 富裕層은 非必需品消費와 輸入의 不斷한 根源을 形成하는데, Levy 氏는 이들의 行狀이 非生産的 資本形成뿐 만 아니라 生産的資本의 非生産的資本으로의 轉換까지도 자극한다고 한다.⁽⁴⁰⁾ 이 階層이 오히려 可用資本의 流失을 助長하는 事實을 過小評價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後進國에서 少數階層의 所得增加가 만드시 그들의 貯蓄能力을 增大시키는 것은 아니며 純國民總生産量의 增加가 人口增加率을 超過하는 경우라도 私的貯蓄性向이 肯定的이라는 保障은 없다. 이러한 推理는, 原則과 效用의 理由에 依하여 後進國經濟 乃至는 租稅政策에서 課稅規準으로서 “外樣”을 利用하거나 奢侈稅等の 重課에 關한 政策을 생각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經濟不均衡을 惡化시키는 것은 消費된 所得部分이지 貯蓄된 所得部分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이 奢侈稅의 適用은 非必需品의 範疇와 程度에 따르는 反面 間接稅의 遞減을 招來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一部購買力의 吸收는 國民生産의 獎勵에 何等 支障이 없을 것인데, 이는 이 吸收가 經濟成長을 위하여 有害한 財貨의 普及을 制限하기 爲한 것이기 때문이다. 如何든 所得分配의 不均等이 增大하는限 誇示消費가 反社會의 效果를 繼續的으로 發生케 할 것이며, 또한 國家經濟發展을 爲한 重大使命을 國民全體의 獻身に 呼訴할 수 없는 것이다. 차라리 이 誇示效果가 왜 反對의 方向으로, 卽 先進國 繁榮에 必要하였던 努力이 後進國民에 依해 模倣되지 않는가를 疑心하게 된다. 그런데 後進國民들은 先進國의 繁榮을 招來한 方法보다도 先進國의 高生活水準에 依하여 더 恍惚해 하는 것이다. 國內에서의 一部層의 高所得形成이 誇示되는 이 現狀은 또한 不滿의 根源으로서 社會의 不正義의 結果인 他人의 裕福을 目前에 보면서 勞動者들이 附加的勞動을 自發的으로 하게끔 하는 것은 아니다. 이點에서 産業革命當時의 倫理는 上流階層에게 責任感을 느끼게 한 反面, 今日의 後進國上流層人口는 惡의 現實의 根源을 退治하지는 않으면서 그들 自身의 利益을 保護하기爲해 모든 方法을 다 使用하는 것이다. 이런點에서 利潤目的과 併行으로 社會共同體에게 奉仕함을 目的으로 하는 企業家型的 養成이 무엇 보다도 時急할지 모른다.

VII. 結 論

이 論稿는 各國의 經濟發展을 完全히 個別的方法으로만 追求해야 함을 證明키위한 것은 아니다. 거의 平等하게 發展한 國家間에서는 大市場과 商品專門化가 주는 經濟的相互利得은 果然 큰 것이다. 그러나 人類全體가 統一되거나 相互依存意識을 갖지 못하는限 各國

(40) Capital Formation and Economic Growth, p. 470

家は 調和된 國內經濟政策의 原則에 依據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後進國經濟는 許容하는 모든 힘의 最大限利用에 依하여 單純經濟에서 複合經濟로의 擴張過程을 履行할 것이다.

瑞西나 瑞典等の 歐洲國家들이 그들의 高度의 專門化의 惠澤으로 繁榮水準에 到達하였다는 論據는 不均等한 經濟成長의 바탕에서의 國際的商品專門化를 爲한 確證의例는 못 된다. 그 反對로 完全히 規模가 틀잡힌 國內工業構造에 依據하는 外國과의 商業關係가 健全한 經濟發展에 福利의 結果를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또한 國內市場의 範圍만이 國家經濟의 生産力을 決定하거나 最重要要素가 아님을 首肯할 수 있다.

그런데 흔히 保護貿易政策이란 不幸한 例를 들면서 後進國經濟政策을 疑心하는 境遇가 있는데 이 政策의 批判보다도 먼저 諸種國內產品保護政策이 恒常 또는 흔히 國家經濟의 利益과 一致하지 않았다는 것도 記憶해야 할 것이다. 卽 長期的의 眼目으로 본 國家經濟全般보다도 少數의 私的利權만을 參酌하고 制限된 見地에서 國內産業擔當者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이다.

先進國과의 附差는 오늘날 이미 이 後進國에서 便宜主義政策에 依해서 배꾸어질 性格의 것이 못 되는 듯 하다. 이 問題의 解決은 따라서 經濟보다도 政治에 依存하는 듯하다.

西歐의 産業革命이 勞働者大衆의 困窮이란 犧牲의 代價로 이루어 졌다면 오늘날 後進國民들 大多數의 生活水準은 이미 最低生活水準에 있으며, 生理的制約에 依하여 發展課業을 爲한 資源의 補充을 爲하여 더 以上の 生活水準低下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後進國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改善할 수 있는 能力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運命論에 屈服하는 것이다. 이 後進國들은 既存하는 國家間의 不平等을 自覺해야 할 뿐 아니라 그들의 努力을 合理化하고 自身の 繁榮을 爲하여 努力할 수 있다는 것을 證明해야 할 것이다.

經濟적으로 繁榮하는 國民들사이에 存在하는 人類愛精神만으로는 國家間의 平等化政策이 태어나기에 不充分하다. 이런 條件下에서 大多數의 後進國들사이에 共同意識이 形成되어 가고 있음은 當然한 것이며 政治的獨立은 經濟力에 依存한다는 理由에서 생긴 民族主義의 現形態들은 盲目的이 아니라는 條件下에서 無視할 수 없는 經濟發展力을 保障할 것이다. 落後한 國家들이 그들 努力을 합쳐 共同步調를 取하여 그 威力이 誇示될 때 少數先進國들도 結局은 共同目的을 向하여 世界經濟・政治에서 協力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國際的民主主義가 없는 限 國際機構들이 世界輿論을 卽 後進國困窮이 오히려 富裕國家들의 將來의 繁榮을 威脅하는 가장 重大한 要素라는 것을 喚起시키는 forum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根據로써 西歐의 welfare state 政策追求가 社會正義에 奉仕했을 뿐 아니라 經濟的飛躍을 通하여 가장 特惠의 地位에 있었던 階層의 利益自體에도 奉仕했다고 事實을 생

각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論旨가 純經濟的領域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批判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Myrdal 氏⁽⁴¹⁾에 依하면 經濟現實의 理論的分析이 合理的이기 爲하여 純經濟的領域에만 限定해야 有效하게 成立한다는 생각은 非現實的假定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世界는 여러 獨立된 科學들로 社會科學을 區分한 在來式方法에 따라서 隔壁을 지니고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經濟問題의 現實的分析은 이 社會科學區分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筆者 서울大學校商科大學 助教授〕
〔 서울大學校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 研究員 〕

(41) Economic Theory and Underdeveloped Regions, London, 1957, p. 10.

<Summary>

On the Basic Problems of Economic Policy in Underdeveloped Countries

*Bin-Gou Kang**

I. Introduction.

In this thesis, some ideas for the possible economic progress in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are proposed. An under-developed country is generally defined as a country with low national income not capable of deciding its course toward development. Though remitted from cultural backwardness, their economical structure is westernized.

Approach to the problems of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is to be divided by comparison with the historical study, econometric study, and study on the economic policy. This thesis is based upon the latter.

II. Political View of Economy.

It is dangerous to use history as guidance for development. Nothing common is found between matters of process of the advanced countries' economical growth and the present problems of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The major difference is the fact that Europe of the 19th century was the precursor of the world and penetrated first into the world market while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of today are under the unbalanced internal economic situation and unfavorable conditions among the world markets, which are not organized in democracy.

III. On the Agricultural Problems.

The agricultural structure of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is characterized by the limited mobility of funds which are formed of incomes from agricultural production, and the low proportion of agricultural investment.

IV. On the Commercial Problems.

One of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under-developed economics is the strong

* Assistant Professor of Business Management, College of Commerce,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Member of th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tendency to commercialization. Entrepreneurs' income does not depend upon the formation of productive capital, but upon the exchange of merchandise. The split into innumerable small capitals makes participation of the innumerable agents on each commercial operation. The appearable realization of intermediate gains decreases the productive willingness and the commercial capital accumulation does not serve on economical construction.

V. On the Industrial Problems.

Not only the accumulation of capital is important, but judicious utilization of this accumulated capital in accordance with the established programme is rather more important. It is necessary also to devise the methods permitting for the increase of the labor factor and the economiza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capital of the production factors.

VI. On Financing Economic Growth.

1. First Aspect.

The monopoly is formed, in under-developed economy, by legislative measure such as loose rhythm of economic growth, rarefaction of capital, insufficiency of demands; a group formed by a number of entrepreneurs, as that of pressure. Therefore, the monopoly is not the result of strict concurrence. It is far from advanced economics that the entrepreneurs' profit does not provoke the additional production factors and the decrease of prices. The familiar enterprises contribute negatively toward an important part of economics in underdeveloped countries. Such enterprises are financed mostly by auto-financement. The banks mostly utilize the commercial method and aim at researching customers' solvability and high rate of interest, inclination toward short-term loans which favor speculation and monopoly situation of import-export. The infra-structure is impossible to build by the minor size of private spontaneous saving which could be considered as a by-product of consumption. This matter shows the necessity of appeal for enforced saving.

2. Second Aspect.

The transmission of capital from personal possession to that of the state through impositions of taxes makes efficient utilization of it possible, especially, heavy taxes on luxuries, for example, with the aim of controlling the consu-

mation of imported merchandize besides other necessities.

VII. Conclusion.

The inferiority of under-developed countries can not be covered by opportunism of economic policy, but recovery could be achieved through the political policy. Unless an international equality is assured, it is natural that a consciousness of community would be formed among the majority of under-developed countries. The different forms of nationalism aroused by the reason that the political independence depends upon economic force and assures the development power considerably under the terms of non-blindedness.